

금남로 가득 '탄핵 인파'... 국민이 이겼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오후 5시에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모인 광주시민 3만여명이 일제히 환호하고 있다.

기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찬성 204·반대 8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국민의힘 최소 12명 찬성표 던져
尹, 직무정지·헌재, 탄핵심판 돌입

국민이 항상 옳았고, 국민이 항상 이겼다. 분노한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사태'를 이겨내고,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 냈다.

〈관련기사 2·3·4·5·6·7·8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원동력이 된 거리의 '촛불'이 '응원봉'으로 바뀌고, 민중가요가 K-POP으로 바뀌었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마음은 한마음 한 뜻이었다.

특히 1979년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로 시작된 비상계엄 속에 5월의 아픔을 지닌 광주 민심은 다시 한번 '5월 광주 정신'으로 대동단결하며 나눔과 연대를 통해 전 국민과 함께 '탄핵 가결'에 힘을 보탤다. 보수진영의 심장인 대구에서도 수 많은 인파가 참여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 놓아 부르며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다.

영하의 날씨에도 광주 동구 금남로와 국회 여의도, 대구 동성로 등 전국 각지에 모여든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를 외쳤고, 시민의 자발적인 연대와 실천은 계엄을 막아내며 이어 '내란 책임자 윤 대통령'의 탄핵 가결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됐다. 국회를 둘러싼 수많은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장에서도 울려 퍼졌고, 가결 소식이 알려지자 일제히 춤을 추기도 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지난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헌법에 따라 해당 시각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는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제 '12·3 계엄사태'는 최장 180일간 '헌법재판소의 시간'으로 접어들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대통령 탄핵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극심한 정세 혼란은 막았다. 환율 급등과 주식 급변동 등 계엄 파장으로 막혔던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통령 공석에 따른 정치 불안과 진영 갈등 등 여전히 국정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정 정상화 및 혼란 극복 등을 위해 여야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정부도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국정을 수습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

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를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재직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하는데,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 정족수를 넘겼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유지했지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찬성 투표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최근 대통령이 담화를 통한 언행과 계엄 관련 추가 증언 탓에 국민의 분노가 더욱 치솟았던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계엄사태'의 '정당성'과 '내란이 아닌 점'을 강조했고,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7일 담화에서는 국정운영을 당정에 맡긴다며 '2선 후퇴'를 이야기 했지만, 5일만에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점도 당내 '탄핵 가결'에 불을 붙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 등 일부 극우 유투버들의 편협한 주장을 사실로 믿는 듯한 대통령의 담화는 '괴변'에 가까웠다는 지적 속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다.

또한, 지난 13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대통령 권한 행사를 이어간 점도 '질서없는 퇴진' 약속과 유배되면서 당내 논란을 키웠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윤석열, 검찰 소환 불응... 오늘 2차 소환 통보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

의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달라고 용산 대통령실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수본 관계자는 "16일째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계엄 막고 탄핵 이끈 원동력은 광주정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조인철 "5·18 헌법수호 빨리 해결"

'12·3 계엄사태'를 막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이끈 원동력에는 '희생, 나눔, 실천'으로 대표되는 '광주정신'이 있었다. 한 밤 중 헬기에서 내린 공수부대의 모습에서 1980년 5월 광주를 떠올린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의 진입을 막았고, 질서 있는 집회를 통해 탄핵안 가결의 정당성을 알렸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설명을 통해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빛을 쬐다"고 밝히는 등 계엄 저지와 탄핵안 가결 과정에 5·18민주화운동이 다시 한 번 회자되고 있다.

이에 지지부진한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탄핵안 표결 전 박 원내대표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광주 출신 한강 작가를 거론하며 "한강 작가는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아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저는

이번 계엄 내란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지난 12월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44년 전 포고령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와 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의 통제 등의 내용이 44년 전 1980년 5월 17일 밤 계엄사령부 포고령 10호와 같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1980년 광주가 떠올랐다"며 "당시 계엄군은 포고령 위반을 빌미로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을 체포하고 연행·구금했고 심지어 학살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선 광주 시민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살아 남은 자의 부끄러움"으로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탄핵안 가결' 14일 호외 발행



1980년 6월 2일자 광주일보(옛 전남매일). 김준태 시인의 시 '아이,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왼쪽)가 계엄사 검열대의 의해 제목과 기사가 무참하게 잘려나간 채 발행됐다(오른쪽). <광주일보 자료사진>

44년 전 '빨간펜 검열' 삭제된 광주일보... 하마터면 또 이런 세상 살 뻔했다

계엄군 언론 검열로 기사 삭제
'12·3 내란' 슬기롭게 극복해야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 진압으로 신문이 휴간한 뒤 재발행된 1980년 6월 2일 광주일보(옛 전남매일신문)에 실린 김준태 시인의 시 '아이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는 계엄군

의 검열로 109행 중 33행만 지면에 실렸습니다. 광주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광주의 아픔을 담은 시의 일부가 계엄군의 손에 삭제된 것입니다.

시민과 언론이 역사 앞에 눈을 감으면, 언젠가 계엄군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억압하고 진실을 감출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2·3 비상 계엄'은 또 한번 국민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사실상 '친위 쿠데타', '내란'이라는 점입니다

다. 이에 광주일보는 44년 전 억압과 분노를 잊지 말고 기억해 '12·3 계엄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아이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의 전문 제작지면(왼쪽)과 계엄군의 '빨간펜 검열'로 누더기 상태로 게재된 보도지면을 다시 한 번 역사 앞에 남깁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